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형철 평론가·조선대문예창작과 교수

폭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종편 방송도 포털 사이트도 눈만 뜨면 각종 유명인(주로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련 정보들을 쏟아 낸다. 국민이 낸 세금을 대신 집행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사회적 공인들의 공적 활동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저 직업의 특성상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 있을 뿐인 사람들의 사적 삶에 대한 정보다. 미담(美談)도 아니고 대부분 추문(醜聞)인데, 사실로 확인된 것과 단지 추정일 뿐인 것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다.

보지 않으면 그만이었으나 쉽지가 않다. 폭격 수준으로 쏟아지는 자꾸 눈에 띄고, 인간 본성의 결합 때문인지 자꾸 유혹에 지고 만다.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날리고, 관련 업체와 매체는 수익을 거두며,

종교칼럼



조방기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미카 예언서에 나오는 말이다. “그분께서 수많은 백성 사이의 시비를 가리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의 잘못들을 밝혀주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미카 4, 3)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2014년 세계 10위다. 국방비는 지난 10년 세 두 배가 증가했다. 북한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북한의 국방비가 1조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34조원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3%다.

최근에 성주에 사드배치를 한다는 소식이 뜨겁다. 성주에 사드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보다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사드가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 지일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고



류재한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아시아문화학회장

1970년대 이후 세계의 도시들은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화적 도시 재생도 인문적 사유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도시 정비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도시재생의 가장 큰 목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의 제고보다 공동체 정신의 회복임을 간과한 결과였다.

광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샤프터의 무늬를 옷맛이 새길 수 있는 건축과 도시가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틀에 맞추어 찍어낸 건축과 도시재생으로 고풍을 잃고 있다.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은 모든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늬인 ‘지문(地紋)

가십의 나라에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한 공적 사안들은 뒤로 밀린다. 이와 같은 정보와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가십’(gossip)이라고 한다. ‘잡담’이라 하면 뜻이 약해지고 ‘뽀론’(訛論)이라 하면 어려우니 ‘쑥덕공론’ 정도로 옮기면 무난해진다.

가십은 정말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일까. 1993년 인류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는 인간의 언어가 발달한 이유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예컨대 사냥을 위한 팀)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보(예컨대 타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폈다. 집단 생활을 하려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일일이 만나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십을 참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특정 성향을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의 산물로 간주하는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십은 진화적 이득이 있어 발달돼 온 것이 된다.

그런데 가십은 왜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가 아니라 부정적 정보를 우대하는 것일까. ‘샤덴프루이드’(Schadenfreude)라는 독일어가 있다. ‘남의 불행(Shaden)을 통해 느끼는 나의 행복(Freude)’을 뜻하

는 이 말을 한국어로는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다. 데이비드 버스의 ‘진화심리학’(1999)에 소개된 한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사회적 추락에 샤덴프루이드를 느끼는데, 타인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의 성공이 부당하다 여겨질수록, 제 자존감이 낮을 사람일수록 그 기쁨의 강도가 세다고 한다.

그러니 가십이 타인의 긍정적 정보가 아니라 부정적 정보에 몰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 정보가 타인의 추락을 예감하게 하고, 그로 인해 나에게 제공될지 모를 반사이익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하며, 그 기대가 결국 나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영국 월간지 ‘사이컬로지스’(Psychologies)(2011년 12월)의 한 기사는 가십에 따르는 부수적 이익 하나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비방이 떳떳하지 못한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일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A가 B에게 제3자인 C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말하면 B가 A를 나쁜 사람이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비방을 먼저 시도하는 일은 꽤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어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B가 A

에게 동조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A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A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B는 판단하게 된다는 것. 이를 통해 A와 B 사이에는 강한 결속 관계가 성립된다. “빨리 친해지고 싶은가? 제 3자를 함께 얼뜬으라.”

가십의 사회심리학을 소략하나마 소개한 것은 그것에 탐닉하는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렇다고 가십을 멀리하고 공적 의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허한 결론을 부르짖기 위해서도 아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왜 가십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언론매체가 난립해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십 생산 자체가 늘어났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가십 유통도 더 원활해졌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

가십이 타인의 추락을 예감하는 쾌감을 제공하고 그 쾌감을 공유하는 이들을 결속시킨다는 설명이 옳다면, 가십의 폭증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여 구성원 각자가 크든 작든 저마다의 성취와 보람을 누리도록 하는데 무능하다는 증거인 것은 아닐까. 그러니 마르크스 식으로 말해 ‘가십은 인민의 아편’인 것일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국가가 북한이 쳐들어온다며 우리 힘으로 지켜내지도 못한 무기를 왜 들이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최근 프랑스 파리, 니스에 이어 뮌헨에도 IS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테러가 있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죄 없는 사람들을 사살하고 있는 것이다. 칼들을 쥐고 있는 두 당사자를 대표하는 이슬람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다. 이슬람의 어원은 씨리마 즉 평화, 친절, 순속, 복종을 뜻한다. 종교적 의미에서의 이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에 복종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의 원래 의미와 종교적 의미 사이의 관계는 깊고 명백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에 복종함으로써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고

정평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랍이 하나님과 겨루려 받은 이름 이스라엘의 어원은 살롭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를 의미한다. 종교적으로 대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단어의 어원은 결국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국면에서 점점 신뢰를 쌓기보다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의 침략을 막고자 하는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만큼 우리도 군사력을 보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

화를 지금 이럴 때 더 필요하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혼란스러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하신 말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루카 24, 36)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내부자의 고발 탓이었고,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이다. 그들이 한 방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고 누군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한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말은 그들에게 믿어라, 사랑하라, 따라라보다 더 강력한 말이다. 안심하라는 말보다 더 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서로 진정해라. 적이 아니라로 들렸을 것이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배치하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언제까지 북한이 우리의 적이 되어야 하나라는 것이다. 외국에 지낼 때 북한 미사일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이 너희 나라 큰일 났다고 걱정을 했다. 그런데 정작 그 뉴스를 듣고도 나는 동요되지 않았다. 너무나 자주 북한이 도발하여 학습된 것일까?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 해도 사재기를 하거나, 이민을 가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군을 믿을 수 있을까? 방산 비리, 노크귀순, 천안함 사고, 연평도 포격

등을 생각하면 우리 군이 방어시스템을 잘 갖추었는지 의심되고 겁부터 난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국가와 국가의 결단인 아니다. 동독과 서독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됐다.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는 길은 서로를 만나는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다면 세계 10위나 되는 국방비를 줄여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업급여 증가, 국민연금 증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평화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울타리를 치고 뾰족한 유리를 꽂아야 도둑을 막는 것이 아니다.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면 이웃들이 우리집을 지켜준다.

사드 배치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시킬 필요 없다. 누군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다행이 아니다. 남에게 충구를 겨누고 있는 것이 불안한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한다. 악수의 상징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면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드를 배치할 일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낮익음’의 도시재생과 인문적 사유

즉 터무니(터에 새겨진 무늬)를 지워버리고 획일적이면서도 ‘낮선’ 콘크리트 블록으로 마감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삶의 기록이자 이야기 즉 ‘지문’(地文)으로서의 건축과 도시를 포기한 도시 개발과 재개발의 결과이다.

토목과 건축 기술자들이 주도했던 광주의 도시재생과 도시 만들기는 주민들을 행복하게 했을까? 주민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시에서의 주민의 행복은 도시가 지녀야 할 근본적 가치이다. 도시재생과 도시 만들기는 이와 같은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순히 물적 공간의 조성과 정비, 개선만이 아니라 인간 즉 주민과 공동체를 배려한 도시재생과 도시 만들기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민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고민(즉 인문적 사유) 없이 물적 공간에 대한 정비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인간을 생각하지 않은 ‘비인문적’ 도시재생과 도시 만들기로 전락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절학적 타기’가 없는 도시설계나 도심 재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다.

인간을 생각하지 않은 ‘비인문적’ 도시 설계와 재생의 아이코닉 미국 세인트루이스(Saint-Louis)의 ‘프루트이트고’(Pruitt-Igoe) 주거 프로젝트는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의 벽 속에 갇혀 있는 광주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1950년 흑인거주 밀집지역에 조성된 주거단지의 건설은 ‘프루트 Pruitt’(흑인 거주자들을 위한 공간)와 ‘이고 Igoe’(백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완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살게끔 만든 이 주거 단지는 편을 나누고 갈등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주거 단지는 흉악 범죄의 온상이 되었고, 그 이면에는 ‘따로’ 살게 만들었던 비인문적 발상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를 지워버리는 ‘낮설음’의 도시 재생이 아니라 고향과 같은 ‘낮익음’ 즉 ‘고향성’의 회복을 통해 활력만만 도시 재생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성공 사례를 들어 보자. 인간의 추악한 욕망으로 산업폐기물과 오염물질로 넘쳐나 버림받았던 곳을 예술로 재탄생시킨 일본 나오시마의 사례는 ‘낮익음’의 도시재생의 좋은 본보기이다.

그 중 나오시마 대중목욕탕 ‘아이러브 유 /I♡湯’은 예술로서 섬사람들의 기억, 즉 고향성을 회복해준 좋은 사례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탕(湯)”은 일본어로 “유”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러브유”는 “난 목욕이 좋다”와 “난 너를 좋아해”를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미술관이 된 목욕탕 속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

다. “탕(湯)” 속에 몸을 담그는 행위는 과거의 기억 속에 몸을 담그는 행위로 이는 결국 기억의 회복이자 고향성의 회복인 셈이다. 여기서 고향성은 ‘낮익음’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과학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자신의 저서 ‘공간의 시학’에서 인간이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 있을 때에 안전한 범위와 온상이 되었고, 그 이면에는 ‘따로’ 살게 만들었던 비인문적 발상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도시는 고향과 같은 ‘낮익음’으로 풍상을 지켜주고, 풍상하는 이를 보호해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꿈꾸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도시는 낮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지만 “평생 동안 우리들의 풍상 속에서 그리로 되돌아가곤” 하는 ‘고향’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는 ‘고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고향성’의 근간은 ‘터무니’를 기억하게 하고 새기게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연성, 기본적 가치를 담아내는 고향과 같은 도시가 만들어질 때, 인간은 자신의 도시와 공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도시에 대한 기억이 온전히 살아 있을 때, 그 도시는 고향과 같은 도시가 된다는 말이다.

社說

김영란법 합헌 불구 이의 제기 귀 기울여야

어제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둘 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종이어서 합당하다고 봤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토록 한 조항도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또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액수는 일률적인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시행령 등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분야를 비롯한 여러 관계 장관들이 즉각 규제 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및 중소기업청장 등이 현재 결정 직후 법제처에 시행령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즉 3만 원(식사비)-5만 원(선선물)-10만 원(경조사비) 규정을 고수할 경우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업계의 심각한 판매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권익위와 국회가 발의·통과시 법들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견을 제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부처 간 갈등 소지를 무릅쓰고 주무 장관들까지 나선 것은 그만큼 비현실적인 법률로 인해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법제처는 최대 30일간 이의를 심사할 수 있는데 이는 김영란법을 손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일부에서는 시행을 3년 정도 늦추거나, 선물 가액 제한에서 농산물만 제외하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예외의 규정이 따라 제외돼 있는 국회의원 등의 경우 정당한 입법 활동이 아닐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보완 요구도 있다.

김영란법의 목표는 비리·부패를 막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야구 승부 조작 존재 걸고 뿌리 뽑아야

올해 출범 35년째를 맞는 프로야구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태양과 문우람, 유창식의 수사로 시작된 KBO리그 승부 조작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한국야구위원회도 조사 팀을 꾸려 2012년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1950경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프로야구계는 최근 해외 원정 도박, 금지 약물 복용, 음란행위 파문 등이 있었다. 여기에 승부 조작까지 터졌으니 팬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당연하다. 국민스포츠로 각광받는 프로야구가 어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사실스포츠계인 브로커들은 연봉이 낮은 선수들에게 접근해 술자리를 주선하고 용돈을 주면서 친분을 쌓은 후 불법 행위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식에게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가 접근했다고 한다.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앞세운 후 ‘불법 하나쯤이

야’ 하는 악마의 유혹으로 선수들을 꼬드긴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스포츠의 핵심이다.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해 승부해야 하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스포츠 존립 자체가 어렵다. 팬들은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위해 땀 흘리는 모습에 열광하고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도 이들은 팬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

돈에 눈이 멀어 스포츠맨십을 내팽개친 선수들의 양식도 문제지만 4년 전 재발방지를 공언했던 KBO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에야말로 승부 조작이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하고 연봉이 적은 유망주들이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주면서 친분을 쌓은 후 불법 행위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식에게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가 접근했다고 한다.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앞세운 후 ‘불법 하나쯤이

無等鼓 (Man-eung-gu)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testimonial about a horse named '말을 탄 남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